

가족 카드를 통해 본 18-19세기 프랑스 파리분지 농민의 부, 직업, 출산, 교육 그리고 결혼

김 경 근

- I. 머리말
- II. 출산조절
- III. 출산과 교육
- IV. 부, 사망률, 자녀 교육 및 직업
- V. 맺음말

I. 머리말

본격적인 인구통계가 나타난 19세기 중엽 이전 프랑스 인의 인구관행을 아는 데에는 해당 촌락 혹은 도시의 교구기록부(registres paroissiaux)가 필수적이다. 교구기록부는 출산 결혼 그리고 사망에 관한 사실들을 기록함으로써 인구관행의 제 측면에 대한 탐구를 가능케 해주기 때문이다. 또한 교구기록부는 대혁명 이후에도 호적부(registres d'état civil)로 명칭만 바뀔 뿐 동일한 종류의 정보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혁명의 단절에 영향 받지 않고 연속적인 연구를 가능케 해준다.

하지만 교구기록부에 대한 의존이 절대적인 까닭에 역사 인구학 분야는 일정한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가 초래되었다. 교구기록부에서는 그 대상이자 주체인 인간이 주로 이름 및 가족관계로만 다루어질 뿐 사회학적, 혹은 계층적 정보는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구기록부를 토대로 한 연구들은 타 분야의 사료나 연구들과 접목되지 못한 채 그 자체로서만 존재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개별 촌락 혹은 소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많이 쏟아

아져 나왔지만¹⁾ 그 분야의 선구자 격인 루이 앙리(Louis Henry)²⁾의 연구 방법이나 문제의식을 크게 탈피하지 못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단계는 연구자의 노력 혹은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료와 관련된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 우선 교구기록부를 토대로 역사인구학의 기본 자료인 가족카드 —부록 참조—를 구성하는 일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요하는 작업이다. 예컨대 한 가구의 가족카드를 살펴보자. 우선 교구기록부 —대혁명 이후에는 호적부—에서 결혼기록을 찾아 신랑과 신부의 결혼 날짜와 함께 세대를 구성한다. 그 다음 교구 기록부의 출생란을 계속 뒤져 가면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록한다. 자녀가 도중에 사망하면 그 날짜도 기록한다. 이 작업은 부부의 결합이 해소될 때 —배우자의 사망 내지 실종, 대혁명 이후에는 이혼도 포함—까지 계속된다.

이렇듯 한 장의 가족카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수십 년 간의 교구기록부를 들춰봐야 하므로 결코 만만한 작업이 아니다. 그런데 주민 1천명 남짓한 촌락에서 매 해 수십 건의 결혼이 거행된다면 같은 종류의 작업을 수십 번해야 만 그 해에 새로 성립된 세대의 가족카드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연구가 한 촌락의 어느 한 시점만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경우는 드물다. 연구대상은 적어도 반세기 내지는 1세기에 걸쳐 있고 촌락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조사해야 대표성을 확보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연구자는 최소한 1천장 이상의 가족카드를 만들어야 할 것이고 이 작업은 적어도 수 년 간의 노력을 요하는 힘든 일임에 틀림없다. 결국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가족 카드를 구축하는 단계에서 에너지를 소진해버리는 경우가 보통이다.

그런데 여기에 계층별 정보, 특히 각 세대의 부에 관한 정보를 접목시키려면 교구기록부가 아닌 별도의 문서를 참조해야 하는데 앙시앵 레짐의 경우 재산 및 소득에 의거하여 징수되었던 타이유세 대장을 조사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여기에서도 타이유세 대장은 연도별로 존재하며 한 가구의

* 이 논문은 2002년 한국 학술진흥재단의 선도연구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1) 역사 인구학 분야의 개별 연구들은 근자에 Jacques Dupaquier, *Histoire des populations de l'Europe, II. La révolution démographique, 1750-1914*(Fayard, 1998)에서 종합적으로 정리된 바 있다.
- 2) Louis Henry, *La population de Crulai, paroisse normande, INED, cahier No 33* (Paris, PUF, 1958) ; *Manuel de démographie historique* (Paris, Droz, 1967).

부의 수준이 일생을 통해서 변해간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해당 가구의 납부액을 조사하기 위해 적어도 30년간의 조세대장을 조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만약 가족카드가 3천장에 달한다면 타이유세 대장을 거의 10만 번 가량 들춰 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개인 차원에서 업무를 내기 어려운 작업이다. 따라서 드물게 이들의 결합이 시도된 경우라 할지라도 한 시점 혹은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었지³⁾ 수십 년 그리고 수십 개의 촌락을 망라한 연구는 아직까지 출현하지 않았다. 하물며 교구기록부나 조세대장을 일상적으로 접촉할 수 없는 외국인 학자들에게는 이 주제에 대한 접근 자체가 고려 밖의 사항인 것이다.

본 연구자는 그 동안 수천 장의 가족카드를 구축해 온 역사인구학 분야의 대가 자크 뒤파키에 (Jacques Dupaquier) 교수의 자료들을 접할 기회가 있었다. 뒤파키에 교수는 10년이 넘는 시간을 들여 파리분지 북서쪽에 위치한 18-19세기 백생 프랑세 지역 농민 수천 가구의 가족카드(fiches familiales)를 구성한 바 있다. 놀랄 만큼 방대한 이 사료의 수량 못지않게 놀라운 것은 아직까지 이 자료들이 본격적으로 활용된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뒤파키에는 짤막한 글에서 이 자료를 소개하고 출산조절의 시점을 가늠해보는 데 그쳤을 따름이다.⁴⁾

우리는 뒤파키에 교수의 가족 카드를 이용한 연구를 함에 있어서 종래와는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그것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가족 카드에 포함된 인구관행에 관한 정보들을 다른 분야의 자료들과 결합하는 것이다. 이는 뒤파키에의 가족 카드 파일이 다른 가족 카드들에 비해 풍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우선 그의 가족 카드는 교구기록부의 결혼기록에 표기된 신랑과 신부의 서명 여부 및 세대주의 직업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여성과 남성의 문자해독 여부 및 직업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뒤파키에는 자료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각 세대주의 타이유

3) 예를 들어 1747년의 파리 분지 한 촌락에 관한 연구로서 David R. Weir, "Family Income, Mortality, and Fertility on the Eve of the Demographic Transition : A Case Study of Rosny-Sous-Bois", *Journal of Economic History*, vol. 55, No. 1(Mar. 1995), pp. 1-16.

4) Jacques Dupaquier, "Révolution démographique dans le Vexin français", *Mémoires de la Société Historique et Archéologique de Pontoise et du Vexin français*, vol. 79, 1996, pp. 327-334.

세(tailles) 납부액에 관한 정보를 첨부하였다. 타이유세 부과는 재산과 수입에 의거하여 행해졌으므로 각 세대의 부의 수준을 반영하는 좋은 자료이다. 이렇듯 인구 자료에 조세, 교육, 직업에 관한 자료들을 결합할 경우 전통 시대 농민들의 인구관행에 대한 다각적이며 계층적인 접근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II. 출산조절

백생 프랑세 지역 — 특히 센 강과 와즈 강 사이에 위치한 지역 — 은 노르망디와 함께 출산조절에 있어서 유럽에서 가장 조숙한 지역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역사가들은 그 지역에서 이미 18세기 중반 경부터 피임이 행해지고 있었음을 밝혀낸 바 있다.⁵⁾ 그러나 백생의 도시 지역과 포도재배 촌락에서 발견된 이 관행을 백생의 밀 재배 촌락들 나아가 파리분지의 밀 재배 지대에까지 확대 적용시킬 수 있는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업적 재배를 하면서 도시와 빈번한 접촉을 하였던 포도 재배자들에 비해 밀 재배자들은 출산조절 같은 도시적 관행에 덜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출산조절 여부 및 그 정도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우선 출산율, 즉 해당 지역 가임 여성에 대한 출산 수의 비율을 밝히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전체 가임 여성의 수를 안다는 전제 하에 가능한 것으로서, 일종의 표본추출에 의해 이루어진 뒤파키에의 가족카드 — 백생의 50여개 촌락에서 이름의 첫 글자가 B로 시작하는 세대주만을 대상 — 로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출산율이 아닌 다른 지표, 즉 세대별 출산 자녀수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각 세대가 실제로 출산한 자녀수가 시기적으로 어떻게 변화였는가를 봄으로써 출산 조절의 시점과 정도를 알아 낼 수 있을 것이다.

1700년에서 1850년에 걸쳐 있는 뒤파키에의 가족카드 파일은 중복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3,459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322장에는 결혼 일자가 누락되어 있다. 이는 결혼식을 다른 촌락에서 올린 후 해당 촌락으로 이주한 결과, 해당 촌락의 교구기록부에 결혼 기록이 누락된 경우일 것이다. 이 경우

5) Marcel Lachiver, "Fécondité légitime et contraception dans la région parisienne", *Hommage à Marcel Reinhard* (Paris, 1973); Françoise Waro, "Etude démographique du pays d'Arthies", *MSHPV*, t. LXV, 19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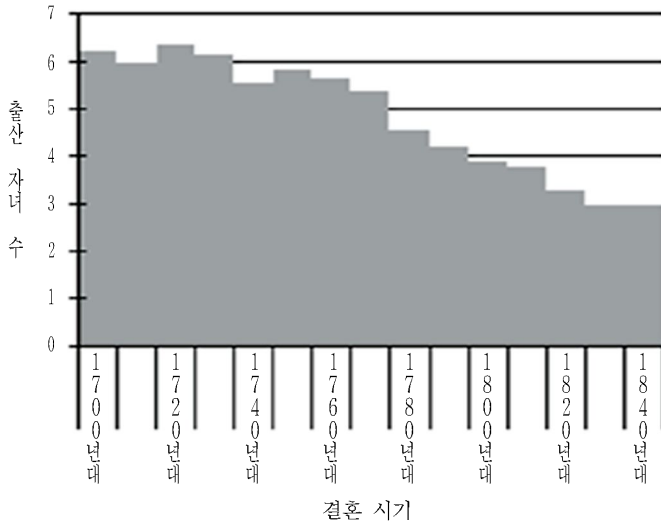
이주하기 전에 살았던 촌락에서 자녀를 출산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그런가하면 결혼이 해소된 날짜가 누락된 가족카드도 271장에 달한다. 이 카드들 역시 출산관행에 관한 연구에는 활용하기 어렵다. 이들은 결혼이 해소되기 전에 해당 촌락을 떠난 경우로서 그곳을 떠난 후 다른 곳에서 자녀를 출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들을 제외하고 남은 2,866장의 가족카드는 결혼 해소의 시점이 알려진 ‘완결 가족(familles achevées)’의 경우이다. 카드의 수는 결혼 시기별로 1700-1739년: 656; 1740-1779년: 673; 1780-1789년: 173; 1790-1850년: 1364장이다. 시기 구분에 있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구관행의 변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간주되는 1740년과 대혁명을 기준으로 삼았다. 또한 18세기 후반의 출산조절관행의 변화를 더욱 상세히 밝히기 위해 1780년대를 따로 구분하였다.

각 세대 당 출산 자녀수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비교할 경우, 우리는 출산의 감소 여부를 확인하고 또 감소가 있을 경우 그 시점을 포착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앞서 또 하나 고려할 사항은 완결 가족 내에 배우자 중 한 명이 일찍 사망함으로써 일찍 단산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 경우 설령 자녀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의도적 출산 조절의 결과로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실제로 결혼생활의 지속기간을 시기별로 비교해 본 결과 15년을 넘지 못한 세대가 18세기 전반에는 35.9%, 1740-1779년에는 27.2%, 1780-1789년에는 19.7% 그리고 혁명 이후에는 22.8%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부부의 의도적 출산 조절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출산완결 가족(familles complètes), 즉 여성 배우자의 나이가 적어도 생식 한도에 도달할 때까지 결혼생활이 유지된 세대 — 통상 45세 — 만을 추려낼 필요가 있다. 이들 ‘출산 완결가족’은 시기별로 각각 336, 414, 116 그리고 903 세대에 달하였다.

〈그림 1〉은 출산 완결가족의 세대 당 평균 출산 자녀수를 시기별로 계산하여 그림으로 표시한 것이다. 〈그림 1〉에서 우리는 평균 출산자녀수가 5명대로 떨어진 1740년대와 4명대로 떨어진 1780년대에 각각 출산 감소가 나타났음을 볼 수 있다. 백생 지역을 포함하는 파리분지의 경우 1740년의 식량위기를 기점으로 출산이 감소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잘 알려진 현상이다. 생활이 어려워질 경우 일부 농민들은 훗날을 기약하며 출산을 미루거나 아니면 완전히 중단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1780년대부터 출산의 감소가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1740년대부터 일부 계층에서 행해진 출산 조절이

〈그림 1〉 결혼 시기별 평균 출산 자녀 수(출산완결 가족)



비교적 널리 보급되기 시작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출산 자녀수의 감소가 나타났다고 해서 그것을 곧 의도적 출산조절의 결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출산 수의 감소라든가 임신율의 저하는 의도적인 출산조절 뿐 아니라 결혼연령의 상승 그리고 기근 혹은 전염병 등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⁶⁾

그렇다면 1740년대와 1780년대에 행해진 출산감소는 어떻게 특징지을 수 있을까? 이는 피임이라는 진정으로 혁신적인 새로운 관행의 도래였는가? 아니면 식량생산이 인구 증가에 미치지 못할 때마다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전통적인 자기조절 메커니즘의 일환이었는가? 이를 알기 위해 우리는 출산완결 가족의 출산감소와 관련된 몇 가지 지표들을 검토하였다.

평균 출산 자녀수는 〈표 1〉에서 보듯이 18세기 중반 경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앙시앵 레짐 말기에 감소세가 더욱 뚜렷해졌으며 혁명 후에도 그 추세가 지속되었다. 감소율은 시기별로 각각 12%(1740-1779년), 19%(1780-

6) 기근과 출산율 저하의 상호 관계는 뉘브레의 선구적 연구 이래 자주 거론되어 왔다. Jean Meuvret, "Les crises de subsistance et la démographie de la France d'Ancien Régime", *Population*, 1946.

〈표 1〉 출산 감소의 몇 가지 지표(출산 완결 가족)

결혼 시기	1700-1739	1740-1779	1780-1789	1790-1850
세대 수	336	414	116	903
평균 출산 자녀 수	6.40	5.61	4.57	3.74
35세 이후 출산 여성의 수	297	332	86	463
비율(%)	88.4%	80.2%	74.1%	51.3%
최종 출산 연령(년)	39.7	38.9	37.8	34.9
여성 평균 결혼 연령(년)	25.8	26.1	26.1	24.4
평균 출산 간격(개월)	27.6	27.2	32.0	35.2
최종 출산 간격(개월)	38.9	39.3	47.1	53.1

1789년) 그리고 18%(1790-1850년)로서 1세기 반 동안에 약 42%가 감소하였다.

출산 감소를 설명하는 하나의 지표로서 들 수 있는 것은 35세 이후에 출산을 행한 여성의 비율인데 그 비율 역시 계속 감소하였다. 감소율은 18세기 중엽과 18세기 말 그리고 혁명 이후에 각각 9%, 8% 및 31%를 나타내었다. 이로서 우리는 출산자녀 수 감소의 일정 부분을 만산의 감소로 설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또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은 최종 출산 연령이다. 실로 출산조절의 초기 단계인 18세기의 경우 결혼 초부터 출산간격을 조정하기 보다는 정상 간격으로 어느 정도 자녀를 낳아 충분한 수에 도달했다고 판단될 때 단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⁷⁾ 따라서 최종 출산 연령 혹은 단산연령은 출산 감소의 가장 확실한 지표로 간주된다. 〈표 1〉에서 최종 출산 연령은 18세기 중반과 후반에 약 1세씩 낮아지다가 혁명 이후에는 약 3세가 낮아져 역시 혁명 이후에 변화가 급속해졌음을 알 수 있다. 18세기에 자녀 당 평균 출산 간격이 27개월에서 32개월에 달했음을 감안할 때 1년 일찍 단산한다는 것은 출산 자녀수를 약 0.4명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이를 출산 평균 자녀수의 감소와 비교해볼 때 이른 단산은 출산 감소의 중요한 부분

7) Etienne Van de Walle, "Nouvelles attitudes devant la vie: la limitation des naissances", in *Histoire des populations de l'Europe, II. La révolution démographique 1750-1914* (Fayard, 1998), p. 133.

을 차지했음을 알 수 있다.

출산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요소로는 결혼연령, 특히 여성의 결혼 연령을 들 수 있다. 만혼으로 결혼 연령이 높아지면 가임 기간이 그만큼 짧아지기 때문이다. 만혼은 전통 사회에서 결혼에 수반된 재정적 부담을 미루어보고자 채택했던 관행으로서 출산 감소의 효과를 가져왔던 일종의 인구 조절 메커니즘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표 1>에서 보는 여성의 결혼 연령은 18세기 중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혁명 이후에는 오히려 낮아졌다. 그 이유에 관해서는 정확히 말하기 어렵지만 만혼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기보다는 18세기 당시 여성의 나이 25~26세는 더 이상 결혼을 미루기 어려운 한계연령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어쨌든 출산 감소에 있어서 만혼의 역할은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끝으로 출산에 영향을 미친 또 하나의 요소는 터울, 즉 출산의 간격을 조절하는 것이었다. 출산 간격이 커지면 당연히 출산 자녀수가 감소될 것이었다. 이 점과 관련하여 <표 1>을 보면 18세기 중엽까지는 변화가 없었으나 1780년대와 대혁명 이후에 출산 간격이 각각 5개월 그리고 3개월씩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1780년대 이전에는 평균 27개월마다 한 명의 아이를 출산했다면 1780년대에는 32개월 그리고 대혁명 이후에는 35개월마다 한 명씩 출산하였다. 이렇듯 출산의 간격이 늘어난 것은 앙시앵 레짐 말기와 대혁명 이후에 결혼한 부부가 의도적으로 출산의 주기를 늘려갔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한편 자녀의 터울을 조절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표 1>의 최종출산 간격은 마지막에서 두 번째 자녀와 마지막 출산 자녀 사이의 터울에 관한 것이다. 그 변화를 살펴보면 역시 혁명 전야와 혁명 이후에 더욱 길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출산간격의 증가를 전부 설명하지 못한다. 따라서 혁명 전야부터 출산간격을 늘리는 방법으로 출산조절이 행해졌으며 그 간격은 특히 최종출산에서 더욱 커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이상의 지표들을 고려해 볼 때 18세기 이후 백생 지역의 출산 감소는 두 가지 단계를 거쳤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18세기 중엽의 단계로서 출산조절은 주로 단산 연령 축소라는 형태를 띠었다. 하지만 그 변화는 크지 않았고 따라서 출산 자체도 완만하게 감소하였을 따름이다.

한편 1780년대 즉 앙시앵 레짐 말기에 형성된 세대는 기존의 경향, 즉 이른 단산을 더욱 촉진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관행, 즉 출산간격을 늘리는 방식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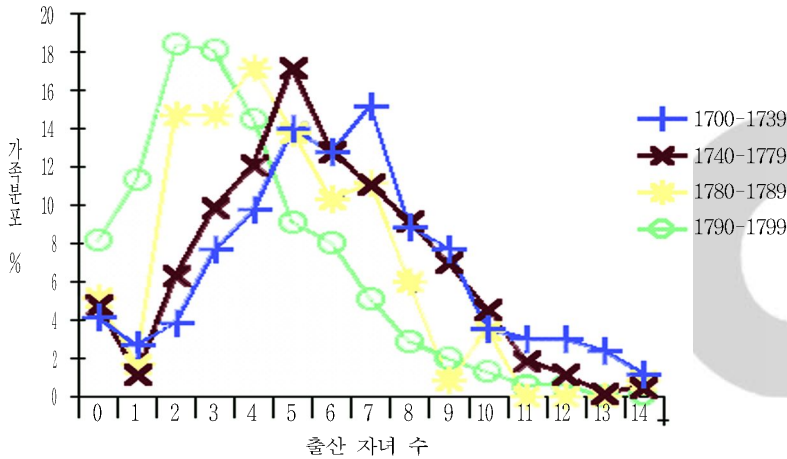
출산조절을 시행하였다. 특히 마지막 자녀와 그 직전 자녀 사이의 출산 간격이 18세기 말에 크게 늘어났는데 이는 부부가 마지막 자녀를 출산하기에 앞서 오랜 시간 망설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1780년대 10년간의 출산 감소는 그 이전 30년 동안에 이루어진 것과 맞먹는 것이었다.

결국 18세기 이래 백성 지역의 출산감소 관행은 18세기 중엽부터 확인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계획출산(fécondité dirigée)의 성격을 띠는 것은 1780년대, 즉 혁명 전야에 형성된 가구들에서부터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는 출산 감소의 방식을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내 준다.

<그림 2>는 출산 자녀 수 별 가족의 분포가 시기별로 달랐음을 보여준다. 1740년 이전에는 7명의 자녀를 둔 가족이 가장 많았지만, 1740-1779년에는 5명, 1780-1789년에는 4명 그리고 대혁명 이후에는 2~3명을 두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현상으로서 가족의 규모가 계속 축소되었음을 확인시켜준다.

또한 우리는 <그림 2>를 통해 출산조절의 방식을 추정해볼 수 있다. 1700-1739년과 1740-1779년의 변화를 비교해보면 두드러진 차이는 자녀 수 11명 이상의 <대가족>에서 나타난다. 그 비중은 1740년 이전의 9.6%에서 18세기 중엽에는 3.8%로 감소하였다. 18세기 중반의 출산조절은 자녀 수 11명 이상의 대가족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므로 그 빈도 역시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었다.

<그림 2> 출산 자녀 수 별 가족분포도(출산완결가족)



반면 1780년대에는 자녀수가 8명에 도달하면 출산제한이 행해졌다. 그리하여 8명 이상의 가족이 1780년대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25~30%에 달했지만 그 이후에는 8~11%에 불과하였다. 출산조절이 시작되는 가족이 대가족에서 중간규모 가족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은 당연히 해당 가족의 수와 출산조절의 빈도가 늘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 아니고 소규모 가족에서도 출산감소를 볼 수 있다. <그림 2>에서 1780년대와 18세기 중엽을 비교할 때 자녀 수 2~4명의 분포가 36.6%대 28.3%로서 1780년대에 소규모 가족의 비중이 더 높았던 반면 5~9명의 중간규모 가족의 경우는 42.2%대 50.3%로서 18세기 중엽에는 중간규모 가족의 비중이 더 높았음을 알 수 있다. 결국 18세기 중엽에 비해 1780년대에는 조금 더 이른 시기부터 출산조절을 행하고 있었으며 8명 이상을 출산하는 경우는 예외적인 현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표 2> 결혼 지속 기간 별 출산 자녀 수(출산 완결 가족)

결혼지속기간 \ 결혼시기	1700-1739	1740-1779	1780-1789	1790-1850
0~4년	1.3	1.3	1.4(?)	1.1
5~9년	3.1	3.0	3.4(?)	2.1
10~14년	4.2	4.8	3.7	2.9
15~19년	5.8	5.0	4.3	3.2
20년 이상	6.3	5.7	4.7	3.6

<표 2>는 결혼 지속기간 별 평균 출산 자녀수를 나타낸 것이다. 역시 18세기 말 그리고 19세기로 갈수록 출산 자녀수의 감소를 볼 수 있다. 단지 1780년대의 경우 지속 기간 10년 미만인 세대 수가 너무 적어 수치의 신뢰도가 떨어진다. 하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분명하다 그것은 갈수록 출산감소의 시점이 빨라진다는 것이다. 우선 18세기 중엽의 경우 결혼 지속 기간 15년 이상부터 이전 시기에 비해 출산이 감소하기 시작하며 1780년대에는 그 시점이 지속기간 10년 이상부터로 앞당겨진다. <표 1>에서 살펴 본 바 결혼한 지 10년이 되는 시점에서 단산하기 시작하는 세대가 많아진다는 사실도 <표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런가하면 혁명 이후에는 아예 결혼 초부터 출산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대혁명 이전의 경우 이미 여러 명의

자녀가 있는 세대에서 출산감소가 행해진 반면 혁명 이후에는 처음부터 일종의 계획출산을 행하였음을 의미한다.

III. 출산과 교육

그렇다면 백생 지역에서 출산조절을 시행한 것은 어떤 계층이었을까? 우선 교육수준에 있어서 문맹자들이었는가 아니면 교육받은 자들이었는가? 주임 사제는 결혼이 행해졌을 때 그 사실을 기록한 다음 결혼 당사자와 그 부모 및 증인들로 하여금 교구기록부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이 때 서명이 가능한 사람은 서명을 하였으며 가능하지 않은 사람은 서명 대신 십자가를 그려 놓거나 아니면 서명을 할 줄 모른다고 말하였다. 이를 토대로 뒤파키에 교수는 가족카드에 결혼 당사자의 서명 여부를 표기하였다.⁸⁾

〈표 3〉은 가족카드에 표기된 바를 토대로 서명비율을 조사한 것으로서 18-19세기에 걸쳐 서명 비율, 즉 교육 수준이 꾸준히 진보하였으며 특히 백생 프랑세 지역에서는 18세기 중엽에 이미 프랑스 전국의 평균을 훨씬 뛰어넘는 높은 교육 수준에 도달했음을 알 수 있다.⁹⁾ 또한 남성과 여성의 격차도 갈수록 줄어들었다. 남성의 경우 18세기 중엽 이후에는 두드러진 변화를 볼 수 없는 반면, 여성의 경우 진보를 거듭하였다. 그리하여 19세기 전반에는 남성 5명 중 4명, 여성 3명 중 2명가량이 결혼계약서에 서명을 할 수 있었다

〈표 3〉 결혼계약서의 서명(출산완결 가족)

	1700-1739	1740-1779	1780-1789	1790-1850
남성 서명자의 수 / 전체	84 / 146	268 / 343	74 / 96	613 / 716
비율(%)	57.5	78.1	77.1	80.1
여성 서명자의 수 / 전체	22 / 145	123 / 337	48 / 95	477 / 756
비율(%)	15.2	36.5	50.5	63.1

8) 뒤파키에 교수는 가족카드에 서명 여부를 다음의 세 범주로 표시하였다: 〈서명자〉, 〈미 서명자〉, 〈서명 여부 미상〉. 서명률을 알기 위해 우리는 〈서명 여부 미상〉은 제외하고 서명자와 미 서명자를 합한 수에서 서명자가 접하는 비율을 계산하였다.
 9) 루아르강 이남의 경우 지역에 따라 대혁명 혹은 19세기 중엽 이후에 비로소 남성 문자 해독 50%선을 돌파하였다. 엠마뉘엘 토드, 『유럽의 발견 - 인류학적 유럽사』(까치, 1997) p. 148, 지도 27 참조.

이러한 높은 수준의 서명률 특히 18세기 중엽 남성의 높은 서명률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것은 무엇보다 학교의 보급으로 인한 것이었다. 이미 1710년 경 백생 프랑세에서는 전체 촌락의 4분의 3에 학교가 있었으며 그 수는 18세기 동안 계속 증가하여 1789년에는 30호 이상의 모든 촌락에 학교가 존재하였다.¹⁰⁾ 물론 빈농들에게는 학교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비용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적어도 백생 지역에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었다. 왜냐하면, 백생에서는 우선 교사에 대한 보수가 대부분 교구참사회에 의해 충당되었으며 소액의 학비를 따로 받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은 주로 여력이 있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빈농들에게 경제적 장애물은 없었다는 의미가 된다. 그렇지 않았다면 지방의 관리들이 농민들로 하여금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도록 적극 권장하거나 그를 어길 경우 벌금을 물리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결국 교육은 부자들의 독점물이 아니었으며 빈농이라 할지라도 특별할 사정이 없는 한 학교에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빈농의 경우라도 3분의 2혹은 4분의 3가량이 결혼계약서에 서명을 할 줄 알았다. 단 여성의 경우는 다르다. 초등학교가 성별로 분리되었던 18-19 세기에는 여자 학교는 남자 학교에 비해 늦게 세워졌으며 대혁명 이후에야 일반화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교육의 발달이 출산조절을 촉진시켰다고 할 수 있을까? 교육이 출산조절의 관행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것은 남성보다는 여성의 교육이 더 밀접한 관계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남성의 경우 출산감소가 본격화하는 1780년대 이후 서명률의 변화가 거의 없지만 여성의 경우 서명률의 진보와 출산의 감소가 병행했기 때문이다. 교육과 출산의 관계를 좀 더 분명히 밝히 고자 우리는 <표 4>에서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의 수를 조사해 보았다.

<표 4>는 예상 밖의 결과를 보여준다. 남녀를 불문하고 서명자 뿐아니라 문맹자에게서도 평균 출산 자녀수가 계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표 4>에 의하면 출산의 감소는 서명자, 즉 교육받은 자들의 독점적 관행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출산감소의 비율을 따져보면 문맹자보다는 서명자에게서 더 감소가 빨랐음을 알 수 있다. <표 4>의 <남성과 여성>을 보면 1세기 반 동안 서명

10) Jacques Dupaquier, "Les écoles de paroisse dans le Vexin français au XVIII^e siècle"(n. 1; s.d).

〈표 4〉 교육수준에 따른 출산 자녀의 수(출산완결 가족) ()는 세대 수

	1700-1739	1740-1779	1780-1789	1790-1850
〈남성〉				
서명자	6.2(84)	5.5(268)	4.5(74)	3.5(613)
문맹자	5.9(62)	5.4(75)	4.3(22)	3.6(147)
〈여성〉				
서명자	6.8(22)	6.1(124)	4.4(48)	3.5(477)
문맹자	5.9(123)	5.2(213)	4.5(47)	3.5(279)
〈남성과 여성〉				
서명 부부	7.0(20)	6.1(114)	4.5(43)	3.4(429)
문맹 부부	5.8(58)	5.3(65)	4.6(16)	3.5(101)

부부에서는 출산감소율이 51%였던 반면 문맹 부부에게서는 40%에 그쳤다. 더욱 주목할 것은 1780년대, 즉 출산조절이 일반화되기 시작한 시기에는 교육받은 부부 혹은 여성들이 변화를 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1740-1779년과 1780-1789년 사이에 교육받은 여성들의 출산은 27%가 감소한 반면 문맹 여성의 경우 감소율은 13%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출산의 논리가 바뀌어 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선 같은 표에서 우리는 18세기 초반에 교육받은 남성과 여성이 문맹 부부에 비해 더 많은 자녀를 출산했음을 볼 수 있다. 18세기 초, 즉 초등교육이 일반화되지 않았던 시기에 교육을 받은 사람은 문맹자에 비해 부유한 계층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인위적 출산조절이 도입되기 이전인 18세기 초에는 〈표 5〉에서 볼 것처럼 부유층 여성이 빈자들에 비해 출산율이 더 높았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유모에게 유아를 위탁함으로써 수유로 인한 일시적 불임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18세기 초에 교육받은 자들의 출산율이 문맹자들의 그것에 비해 더 높았던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는 자연 출산(fécondité naturelle)의 논리라 할 수 있는 바 이 논리는 〈표 4〉에서 보는 것처럼 18세기가 진행되면서 차츰 바뀌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1780년대가 되면 서명자와 문맹자 사이의 출산율 차이가 소멸된다. 1780-1789년의 경우 서명자들이 — 남성, 여성 혹은 남성과 여성 — 문맹자들보다 더 높은 출산율을 나타내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서명자들 — 특히 여성 서명자 그리고

여성 서명자가 문맹 남성과 결혼하는 경우는 드물었기 때문에 자연히 남성 서명자들 — 이 〈계획 출산(fécondité dirigée)〉의 선구자로서 새로운 출산관행, 즉 출산조절을 주도했음을 의미한다.

결국 교육의 발달은 18세기 중엽까지는 출산조절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1780년대 즉 앙시앵 레짐 말기부터는 교육받은 여성들이 출산조절을 주도해간 것을 볼 때 출산조절이 18세기 대중 교육의 발달 그리고 특히 여성 의식의 계몽과 무관하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교육의 역할은 앙시앵 레짐 말기, 즉 의도적 출산조절이 도입되는 시점에 주로 한정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표 4〉의 혁명 이후 시기에서 보는 것처럼 일단 출산조절 관행이 정착되면 그것은 교육받은 자들 뿐 아니라 문맹자들에게도 지배적인 관행이 되기 때문이다.

어쨌든 출산 조절과 교육의 관계를 무시하거나 혹은 너무 강조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출산 관행은 복합적으로 설명되어야 하는 바, 고려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소로서 우리는 부의 수준을 들 수 있다.

IV. 부, 사망률, 자녀 교육 및 직업

자크 뒤파키에는 자신이 작성한 가족 카드에 해당 세대의 타이유 세 납부액에 관한 정보를 첨부하였다. 백생 프랑세 지역 퐁투아즈(Pontoise) 징세구의 타이유세 대장은 1685년부터 1789년까지 보존되어 있으며, 세액은 납세자의 재산 및 소득에 따라 부과됨으로써 납세자의 부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각 세대의 평균 납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우리는 결혼부터 마지막 자녀의 출산에 이르는 기간 동안의 세액 평균을 취하였다. 또한 세대를 부자와 빈자의 두 범주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범주에 전체 세대수의 20%와 80%를 할당하였다. 이는 양극화 된 파리 분지 농촌의 구조를 감안한 것으로서 전자는 기업적 차지농, 자영농 그리고 농촌 상인 등을 포함하며 후자는 농업노동자(manouvrier), 수공업자, 포도재배자 그리고 빈곤한 자영농 등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조세대장이 보존되어 있지 않은 대혁명 이후의 시기에 대해서는 각 세대의 부의 수준을 반영하는 사료로서 결혼계약서에 표기된 지참금 액수를 활용하였다.¹¹⁾

11) 지참금 액수를 조사하기 위해 우리는 발-두아즈 도립 문서보관소에 보존된 결혼계약



서 기록부를 참조하였다. Archives Départementales du Val-d'Oise, série Q.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1790-1850년의 기간 동안 기록부의 심한 공백으로 인해 조사대상 가구 수가 미약할 수밖에 없었다.

〈표 5〉에서 우선 부와 교육의 관계를 보면 부자들 뿐 아니라 빈자들도 상당 부분 18세기 교육의 진보의 혜택을 입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교육 수준이 더 높았던 것은 부자들이었다. 부자의 경우 18세기 중엽에 이미 남성의 서명률이 거의 100%에 달했고 여성의 서명률은 60%를 넘어섰지만 빈자의 경우 남성의 4분의 3, 여성의 3분의 1만이 서명할 수

〈표 5〉 부, 교육 및 출산(출산완결 가족)

	1700-1739	1740-1779	1780-1789	1790-1850
〈부유한 세대〉				
세대 수	43	59	11	23
평균 자녀 수	6.77	6.69	5.00	3.35
타이유세액과 지참금 액수 (리브르와 프랑)	42.6	59.1	32.5	5708
남성 서명자 수 / 전체	14 / 18	48 / 49	(-)	8 / 19
비율(%)	77.8%	98.0%	(-)	94.7%
여성 서명자 수 / 전체	3 / 18	30 / 48	(-)	17 / 19
비율(%)	16.7%	62.5%	(-)	89.5%
여성 최종 출산 연령(세)	39.5	39.8	36.9	
〈빈곤한 세대〉				
세대 수	174	235	45	91
평균 자녀 수	6.34	5.52	5.09	3.47
타이유세액과 지참금 액수 (리브르와 프랑)	7.7	5.8	3.4	1429
남성 서명자 수 / 전체	42 / 77	149 / 202	32 / 40	66 / 74
비율(%)	54.6%	73.8%	80.0%	89.2%
여성 서명자 수 / 전체	11 / 77	65 / 201	21 / 40	51 / 74
비율(%)	14.3%	32.3%	52.5%	68.9%
여성 최종 출산 연령(세)	39.6	38.8	38.1	

* (-): 표본 수 미약(10세대 이하)

있었다.

또한 출산관행에 있어서도 차이가 비교적 뚜렷하였다. 18세기에 부자와 빈자는 공히 출산 감소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18세기 중엽에는 빈자들이 출산 감소의 주역이었다면(빈자의 경우 13%, 부자는 1% 감소), 1780년대에는 부자들이 그 역할을 맡았다(부자의 경우 25% 감소, 빈자는 13%). 대혁명 이후에는 두 계층의 감소율이 비슷해졌다.

최종출산 연령, 즉 단산연령의 변화도 출산의 변화를 확인시켜준다. 빈자의 경우 단산 연령이 꾸준히 그러나 느리게 감소되며 출산율도 그에 따라 조금씩 낮아졌던 반면, 부자의 경우 18세기 중엽까지는 변화가 거의 없다가 1780년대에 들어서면서 단산연령이 약 3년 가량 크게 낮아졌다.

이상 <표 5>를 통해 본 출산과 부의 관계 그리고 앞 장의 <표 4>에서 본 출산과 교육의 관계를 결합하여 도출할 수 있는 잠정적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우선 출산율은 교육받은 부유층 뿐 아니라 빈곤층 - 그 안에는 문맹자 뿐 아니라 교육받은 자들도 다수 포함됨 - 에서도 감소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빈곤층에서 출산 감소가 일찍 - 18세기 중엽부터 - 나타났다면 교육받은 부유층에서는 1780년대에 와서야 그 현상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18세기 중엽의 출산조절이 주로 빈농들 사이에서 생활상의 이유로 부과된 측면이 강했으리라는 추측을 할 수 있는 한편 1780년대부터는 생활고와는 다소 다른 동기에서 교육받은 부농들 사이에서도 - 빈농층의 출산감소를 배제하지 않은 채 - 행해졌을 것이라는 주장이 가능하다.

부자와 빈자의 출산 감소의 논리, 특히 그 시기적 차이를 설명하고자 우리는 유아 사망률을 조사하였다. 유아사망률이 큰 계층보다는 작은 계층에서 출산조절의 필요를 더 크게 느끼지 않았을까?

<표 6>에서 5세 이하 유아의 사망률은 18세기 중 계속 감소하였으며 그 추세는 혁명 이후에도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18세기 초에는 3명 중 1명의 유아가 5세를 넘기지 못했던 반면 19세기 전반에는 약 6명 중 1명만이 5세 이전에 사망했을 따름이다.

그러나 유아 사망률이 낮아졌다는 것은 부양해야 할 식구가 늘어났음을 의미하며 그에 따라 출산 조절의 필요가 대두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필요는 당연히 부자들보다는 빈자들에게 더욱 절실했을 것이며 빈자의 유아사망률이 이미 18세기 중엽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것을 감안하면 당시 빈농층에서 출산 감소가 나타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표 6〉 부의 수준에 따른 유아 사망률(출산완결 가족) (결혼 생활 5년 이상 지속 부부)

	1700-1739	1740-1779	1780-1789	1790-1850
〈부자와 빈자〉				
세대 수	333	421	71	156
5세 이하 사망 유아의 수 / 출생 유아의 수	700 / 2000	707 / 2294	86 / 353	92 / 523
사망률(%)	35.0%	30.8%	24.4%	24.4%
〈부자〉				
세대 수	67	84	14	31
5세 이하 사망 유아의 수 / 출생 유아의 수	130 / 407	164 / 515	16 / 71	21 / 107
사망률(%)	31.9%	31.8%	22.5%	19.6%
〈빈자〉				
세대 수	266	337	57	125
5세 이하 사망 유아의 수 / 출생 유아의 수	570 / 1593	543 / 1779	70 / 282	71 / 416
사망률(%)	35.8%	30.5%	24.8%	17.1%

한편 부농의 경우에는 유아사망률의 감소로 인한 압박을 빈농처럼 크게 받는 않았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예상과 달리 부농층의 유아사망률은 18세기 중엽까지 감소하지 않고 유지되었다. 그 이유를 정확히 알기는 어려우나 부자들은 통상 자녀를 유모에게 위탁하는 관행이 있었으며 유모에게 맡겨질 경우 유아의 사망률은 비교적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말해진다. 어쨌든 부농들로서는 18세기 중엽에 출산조절을 시도할 이유가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1780년대로 가면 상황이 달라진다. 유아사망은 전반적으로 줄어들지만 감소율은 빈농층—18세기 중엽에 비해 19%—보다는 부농층—18세기 중엽에 비해 29%—에서 두드러졌다. 이는 부농들이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부농층의 경우 통상 여성의 결혼연령이 상대적으로 낮고 또한 유모 위탁관행이 빈번한 관계로 자연 출산을 고수할 경우 출산 간격이 짧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1780년대처럼 유아 사망률이 크게 감소한다면 이는 자녀의 수가 갑자기 늘어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었다. 이 경우 늘어나는 자녀를 부양할 수는 있다손 치더라도 그들을 출가

시키고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일은 부농들에게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을 것이다. 특히 파리분지는 프랑스 중부 이남과는 달리 상속관행에 있어서 장남과 차남 혹은 딸들까지 차별하지 않고 완전히 평등 상속을 하는 것이 관례였다. 따라서 유아사망률의 급격한 감소라는 앙시앵 레짐 말기의 새로운 상황은 부자들에게도 압력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하여 <표 5>에서 보는 것처럼 출산조절을 통해 피상속자의 수를 제한함으로써 상속재산의 규모를 보존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출산 조절은 가족생활, 예컨대 자녀의 양육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 점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조사가 가능한 사항은 자녀 교육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이를 위해 세대주의 가족카드에 표기된 그 부모의 이름을 가지고 부모의 가족카드를 찾아 부모와 자녀의 서명 여부를 조사하였다. 뒤파키에 교수의 가족카드가 주로 첫 글자가 B로 시작하는 남성 세대주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출가한 딸들의 행방을 추적하기는 어려웠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들에 대한 조사로 그칠 수밖에 없었다.

출산 조절은 자녀의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을까? 양적인 면을 회생하여 생활의 질을 추구하는 현대의 출산조절의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그것도 가능한 추측이다. 하지만 <표 7>에 나타난 18세기 백성 프랑세 농민의 관행은 이 가설에 잘 부합하지 않는다. 우선 아버지 세대에 비해 자녀 세대의 교육수준이 별로 높아진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18세기의 경우 출산조절 여부에 관계없이 자녀 세대의 교육수준에는 별로 변화가 없는 데, 이는 우선 18세기 아버지 세대의 교육 수준이 이미 높았다는 사실에 기인할 것이다. 그리고 특히 17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의 경우 대개 혁명기에 취학 연령에 도달하였는데 혁명기는 교육체제가 상당한 혼란을 겪은 시기였으므로 아들 세대의 서명률이 아버지 세대의 그것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컸다.

<표 7> 출산과 자녀 교육

	1740-1779		1780-1789		1790-1830	
	자녀 수 평 이하 가구	자녀 수 평 이상 가구	자녀 수 평 이하 가구	자녀 수 평 이상 가구	자녀 수 평 이하 가구	자녀 수 평 이상가구
아버지 (%)	57/ 68(84%)	73 / 91(80%)	12/12(100%)	27/37(73%)	15/21(71%)	24/28(86%)
아 들 (%)	94/117(80%)	132/158(84%)	16/21(76%)	42/55(76%)	27/28(96%)	33/43(77%)

따라서 혁명기를 포함하여 18세기에는 양을 희생하여 질을 추구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표 7>에서 19세기를 보면 아들 세대에 변화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19세기의 부모들은 출산조절을 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자녀 교육에 더 신경을 썼음을 확인할 수 있다(자녀의 서명률이 96% 대 77%). 생활의 질을 중시하는 출산조절이 19세기 초부터 본격적으로 대두하였을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대상 자료수가 빈약한 관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표 8> 직업별 출산 자녀 수(출산완결 가족) ()는 세대 수

	1700-1739	1740-1779	1780-1789	1790-1850
자 영 농	6.6(38)	6.0(54)	4.4(16)	3.4(163)
포도재배자	5.8(28)	5.1(41)	(-)(5)	4.5(14)
농업노동자	6.4(88)	5.5(113)	4.3(37)	3.9(223)
수 공업자	6.7(50)	5.7(96)	4.9(24)	3.7(271)
상 인	6.7(22)	7.1(33)	6.3(8)	3.5(54)

(-): 표본 수 미흡(5세대 미만)

끝으로 우리는 가족카드에 표기된 세대주의 직업을 토대로 <표 8>에서 직업별 출산 관행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표 8에 의하면 출산관행에 있어서 직업별로 뚜렷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대부분의 직업종사자들은 18세기 중엽부터 출산 자녀수를 줄였으며 —상인 계층 제외— 그 추세는 혁명 후에도 지속되었다.

그러나 18세기 중엽에 가장 먼저 출산을 감소시키기 시작한 것은 역시 수공업자, 농업노동자, 포도재배자 그리고 빈곤한 자영농 등 빈농층이었다. <표 5>에서 확인한 바 18세기 중엽부터 출산조절을 시도한 빈농층이 바로 이들이었다.

양시엔 레짐 말기에는 이 추세가 역전되었다. 이 시기에는 부유층 —자영농과 상인들— 이 출산을 크게 감소시킨 것이다. 이들 자영농과 상인들은 <표 5>에서 확인한 교육받은 부자들이었을 것이다. 또한 혁명 이후에도 이들 부유층에서 출산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V. 맺음말

출산조절은 프랑스 근대사의 본질적인 특징의 하나였다. 그 시점을 혁명기로 잡는다 하더라도 이는 다른 유럽 국가들 — 독일이나 영국 등 — 에 비해 거의 1세기나 앞선 것이었다. 우리는 19세기 프랑스 소농들이 동시대 영국이나 독일의 인민이 겪었던 운명, 즉 도시의 무산대중으로 전락하는 산업화의 과정을 다소 비켜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는 만약 프랑스가 유럽의 인접 국가들과 비슷한 출산율을 나타내었다더라면 생각하기 어려웠을 것이다.¹²⁾

그 점에서 본다면 피임의 시점이 혁명 이전인가 혹은 이후인가 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처럼 비칠지도 모른다. 하지만 출산조절에 관한 한 노르망디와 함께 가장 선구적인 파리분지 백생 프랑세 지역의 농촌에서 그 시점을 따져보는 것은 바로 유럽의 농촌에서 일반 농민이 언제부터 의도적 출산조절을 했는가라는 의문에 답하는 일이다.

우리는 이 연구를 통해 몇 가지 성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 우선 파리분지 농촌에서의 피임의 시점과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들이 밝힌 바 있는 18세기 중반이란 시점을 확인하였으며 1780년대부터는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기존의 연구들이 등한시 한 파리분지의 밀 재배 촌락에서도 18세기 중반 이후에 출산조절이 시행되었음을 밝힐 수 있었던 것은 하나의 성과이다. 이로써 우리는 출산조절이라는 ‘프랑스적’ 현상이 비단 도시 혹은 도시화된 농촌에서 뿐 아니라 아직 농촌적 성격을 간직하고 있었던 곡물재배 위주의 촌락에서도 행해진 거의 일반적인 — 적어도 프랑스 파리분지를 중심으로 하는 북서부 농촌 지역에서는 — 현상이었다는 것을 밝혀낼 수 있었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 역점을 둔 것은 출산조절 관행을 계층별로 검토하는 것이었다. 그럼으로써 종래의 연구들이 일괄하여 취급했던 농촌 가구들의 인구적 관행이 계층별로 서로 다르게 전개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 빈자들은 18세기 중엽부터 선구적으로 출산조절을 행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1740년대의 기근 등 생활고와 유아사망률의 감소라는 이중의 압력에 대

12) 인구의 완만한 증가는 19세기 산업화의 〈프랑스적 경로〉를 가능케 한 주요 요인의 하나였다. 이에 관해 김경근, “19세기 프랑스의 경제발달(1815-1914) — 전통속의 근대화”, 『프랑스 근대사연구』(한울 아카데미, 1998), pp. 262-263 참조.

한 방어 차원의 것이었으며 교육받은 자뿐 아니라 문맹자들도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식의 계몽의 결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또한 변화의 폭도 미미했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의도적 출산조절의 시작으로 간주하기에는 주저되는 바가 없지 않다.

이에 비하면 부농층은 주로 1780년대부터 출산조절을 시도하였던 바, 그 경우에도 유아사망률의 감소가 작용하였지만 그들에게는 상속재산의 지나친 세분화를 막아보려는 보다 장기적인 고려도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1780년대부터의 출산조절은 부유하고 교육받은 계층이 주를 이룬 것으로서 교육의 진보와도 무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교육의 진보와 출산조절이 병행한 점, 또한 이 글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출산조절의 주요 배경이라 할 수 있는 18세기 프랑스의 탈 기독교화를 교육의 보급이 촉진시켰을 것임을 감안한다면¹³⁾ 교육의 발달이 출산조절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유아사망과 관련하여 18세기 중엽에 부농층보다 오히려 빈농층에서 그 비율이 감소하였다는 뜻밖의 결과를 볼 수 있었다. 이는 18세기에 출산조절이 행해졌다는 사실과 더불어 18세기 프랑스 파리분지의 농민이 높은 사망률 및 그 보다 높은 출산율로 특징 지워지는 맬더스의 '음울한 세계'를 이미 그 도식이 출현하기 반세기 전에 스스로 깨뜨리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북대학교 사회교육학부 교수

주제어 : 가족카드, 교구기록부, 타이유세 대장, 백생 프랑세, 출산 자녀수, 출산 조절, 서명률, 유아 사망률, 맬더스, 자크 뒤파키에, 결혼계약서.

13) 탈기독교화가 출산조절에 미친 영향에 관해서는, 김경근, 「피임에서 혁명으로 - 대혁명기 프랑스 파리분지의 농민들」, 『프랑스사 연구』, 제 3호, 2000년 8월, pp. 34-38 참조.

부록 : 가족카드의 예

KCS I

〈참 고 문 헌〉

1차 사료

가족카드 : Archives Départementales du Val-d'Oise의 교구기록부(자크 뒤파키에의 파일)

타이유세 대장 : Archives Départementales du Val-d'Oise, série C.

결혼계약서 : Archives Départementales du Val-d'Oise, série Q.

2차 문헌

Jacques Dupaquier, *Histoire des populations de l'Europe, II. La révolution démographique, 1750-1914*(Fayard, 1998)

Jacques Dupaquier, "Révolution démographique dans le Vexin français", *Mémoires de la Société Historique et Archéologique de Pontoise et du Vexin français*, vol. 79, 1996, pp. 327-334.

Jacques Dupaquier, "Les écoles de paroisse dans le Vexin français au XVIII^e siècle"(n. 1; s. d).

Louis Henry, *La population de Crulai, paroisse normande*, INED, cahier No 33(Paris, PUF, 1958); *Manuel de démographie historique* (Paris, Droz, 1967).

Marcel Lachiver, "Fécondité légitime et contraception dans la région parisienne", *Hommage à Marcel Reinhard* (Paris, 1973); Françoise Waro, "Etude démographique du pays d'Arthies", *MSHPV*, t. LXV, 1975.

Jean Meuvret, "Les crises de subsistance et la démographie de la France d'Ancien Régime", *Population*, 1946.

Etienne Van de Walle, "Nouvelles attitudes devant la vie : la limitation des naissances", in *Histoire des populations de l'Europe, II. La révolution démographique 1750-1914*(Fayard, 1998), p. 133.

David R. Weir, "Family Income, Mortality, and Fertility on the Eve of the Demographic Transition : A Case Study of Rosny-Sous-Bois", in *Journal of Economic History*, vol. 55, No. 1(Mar. 1995),

pp. 1-16.

엠마뉘엘 토드, 『유럽의 발견 — 인류학적 유럽사』(까치, 1997)

김경근, “19세기 프랑스의 경제발달(1815-1914) — 전통속의 근대화”, 『프랑스 근대사연구』(한울 아카데미, 1998).

김경근, “피임에서 혁명으로 — 대혁명기 프랑스 파리분지의 농민들”, 프랑스사 연구, 제 3호, 2000년 8월.

K C I

〈Résumé〉

Fichiers familiaux des paysans du Vexin français : richesse, profession, naissance, éducation et mariage(18^e-19^e siècle)

Kyung-Keun KIM

C'est une étude faite à partir de 3,459 fichiers familiaux constitués par M. Jacques Dupaquier. Le plateau céréalier du Vexin français était plutôt négligé par des historiens démographes qui ont, pourtant, repéré les premières indices de contraception de la France dans les villages viticoles du Vexin. Dans cette étude nous croyons à avoir établi que les paysans céréaliers du Vexin avaient contrôlé des naissances dès le milieu du XVIII^e siècle.

Nous l'avons examiné aussi par groupes sociaux, en espérant de trouver des différences du comportement démographique entre les riches et les pauvres, les éduqués et les non-éduqués. Les pauvres étaient les premiers — dès 1740s — qui ont diminué les naissances. Mais il semble avoir été plutôt une réaction défensive face à la famine et à la diminution un peu inespérée de la mortalité infantile que la contraception au sens moderne.

Quant aux riches, ils l'ont pratiqué dès 1780s face à — semble-t-il — la diminution de la mortalité infantile, ce qui a été, pourtant, une stratégie visant à conserver le patrimoine successoral. On pourrait la classer comme la contraception moderne, d'autant plus que des gens qui l'ont fait étaient, cette fois, majoritairement les éduqués.

On peut affirmer donc que le progrès de l'éducation — très net au cours du XVIII^e siècle dans le Vexin — a contribué à une généralisation des pratiques malthusiennes. Quoi qu'il en soit, il est certain que les paysans vexinois ont réussi à casser le 'cercle malthusien' même avant qu'il soit formulé.

<Summary>**Peasants' Family Cards in Vexin Français : Richness,
Profession, Birth, Education and Marriage(18th-19th century)**

Kyung-Keun KIM

It's a study done from 3,459 family cards constructed by Professor Jacques Dupaquier. So far, the cereal plain of Vexin Français has been neglected by demographic historians who, nevertheless, have revealed the first indices of contraception of France in the wine-producing villages of Vexin Français. We dare to think that we have proved that the peasants in the cereal-producing villages have controlled the birth from the middle of the 18th century.

We have examined the groups by social standards to understand the difference of demographic behaviour between riches and poors, the educated and non-educated. The poors have been the first — from 1740s — who have diminished the number of birth. But it seems to have been rather a defensive reaction to the famine and to the diminution of the child mortality than the contraception in a modern sense.

As for the riches, they have practiced it from the 1780s when the diminution of child mortality appeared which, nevertheless, was a strategy aiming at preserving the hereditary property. In addition, men and women controlling the birth in that period were educated in majority. That's why we classify the diminution in 1780s as a modern contraception.

We affirm therefore that the progress of education — very clear in the course of 18th century in Vexin Français — has contributed to a generalization of the contraceptive practices. In any case, it seems certain that the Vexin peasants have succeeded in breaking the 'malthusian chain' even before the English pastor has formulated it.